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7월 16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15.(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15.(금)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남명우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전종형 사무관(044-203-4089)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2. 7. 15.(금)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분석한 자료임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22년 6월 30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2년 3분기(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2년 10월 발표 예정**

신고기준 110.9억불 · 1,640건, 도착기준 69.7억불 · 1,183건

-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감소(△15.6%)에도 불구, 역대 3위 신고금액 기록 -
- 제조업(+53.3%), 그린필드(+9.1%), 신고 · 도착건수(+10.1%, +12.1%) 등 증가 -

Ⅰ.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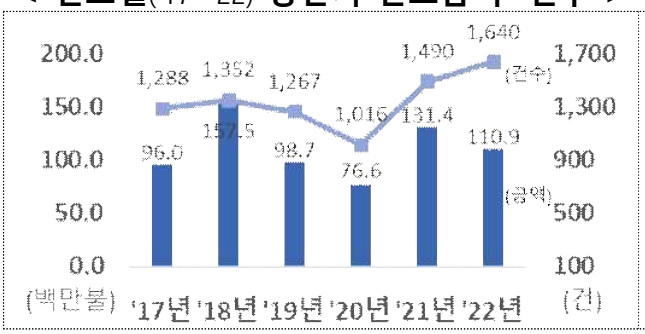
□ (금액) '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110.9억불(전년동기比 △15.6%), 도착기준 69.7억불(△21.1%)을 기록

< 연도별 상반기 FDI 실적(단위 :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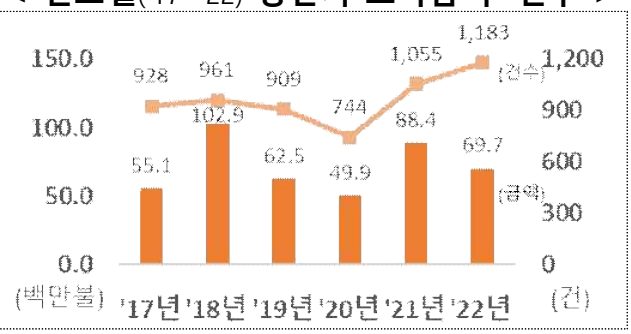
구분	'22년 상반기	(전년동기比)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5년 평균 ('17~'21)
신고	110.9	△15.6%	131.4	76.7	112.1
도착	69.7	△21.1%	88.4	49.9	71.7

□ (건수) 신고기준 1,640건(+10.1%), 도착기준 1,183건(+12.1%)을 기록

< 연도별('17~'22) 상반기 신고금액 · 건수 >



< 연도별('17~'22) 상반기 도착금액 · 건수 >



□ (평가) 러·우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 FDI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실적보다는 12.3% 증가한 역대 3위* 실적(신고금액)을 기록

* 상반기 기준 1위는 '18년 157.5억불, 2위는 '21년 131.4억불 / 도착금액은 역대 4위

○ EU發(△73.2%*) 및 서비스업 투자(△26.3%)는 감소했지만 제조업(+53.3%)·그린필드(+9.1%) 투자, 신고·도착건수 증가 등은 긍정적 측면

* 전년도 대형투자 유입에 따른 逆기저효과(A社 21.0억불, B社 18.0억불 등)

○ 수도권 外 지역(+36.4%)의 투자가 증가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Ⅱ. 세부 동향(업종별 · 국가별 · 대상별 · 자금별 · 지역별)

1. 업종별

□ (신고금액) 제조업(+53.3%, 비중 15.4%)은 증가, 서비스업(△26.3%, 비중 78.9%)과 기타업종(△53.7%, 비중 5.7%)은 감소

* 기타업종 : 1차 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 업종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업종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제조업) 31.0억불(전년동기比 +53.3%, 비중 15.4%)

< '22년 상반기 신고금액 >



< '21년 상반기 신고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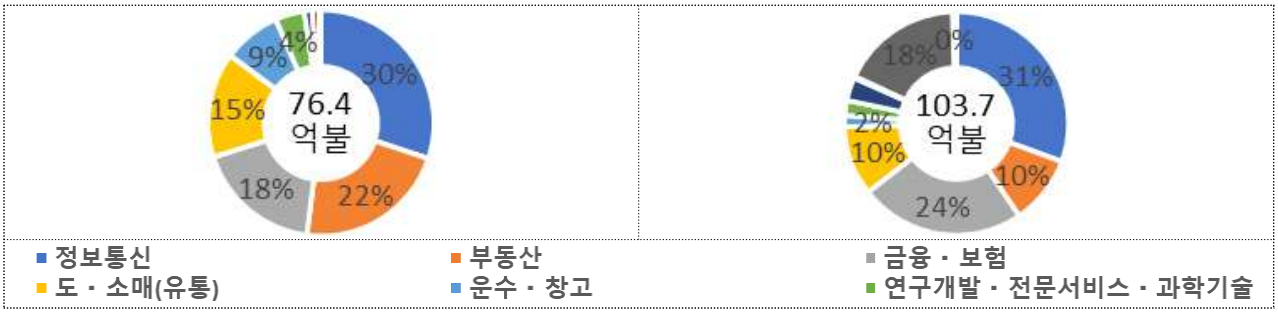
- 증가업종은 의약(+1,779.4%), 식품(+484.4%), 제지·목재(+353.3%), 기계장비·의료정밀(+196.0%), 금속(+74.1%) 등

* (주요 투자사례) C社(식품, 5.7억불), D社(기계장비·의료정밀, 2.6억불), E社(운송용기계, 2.1억만불), F社(전기·전자, 1,3억불), G社(전기·전자, 1.2억불)

- 감소업종은 비금속광물(△81.2%), 운송용기계(△41.9%), 화공(△7.1%)

○ (서비스업) 76.4억불(전년동기比 △26.3%, 비중 78.9%)

< '22년 상반기 신고금액 >



< '21년 상반기 신고금액 >

- 증가업종은 **운수·창고**(+268.6%), **여가·스포츠·오락**(190.6%), **부동산**(+61.4%), **연구개발·전문서비스·과학기술**(+41.3%) 등

- 감소업종은 **사업지원·임대**(△99.4%), **숙박·음식**(△74.9%), **정보통신**(△27.4%)등

□ **(신고건수) 제조업**(198건)은 **전년과 동일**하고 **서비스업**(+8.3%, 1,356건)·**기타업종**(+115.0%, 86건)은 **증가, 건당 신고금액**은 **제조업에서 증가**(10.2→15.7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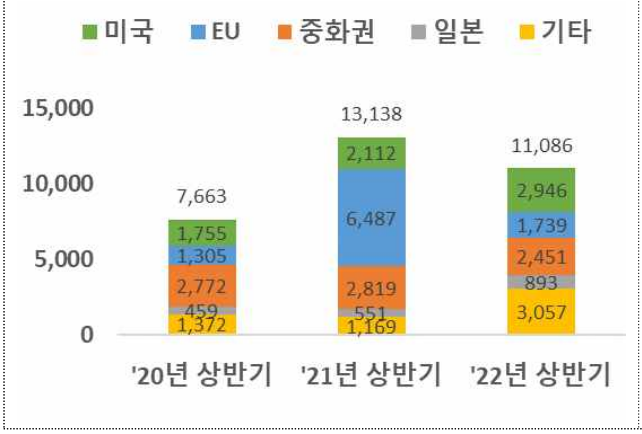
2. 국가별

* EU : 영국 포함, 중화권 :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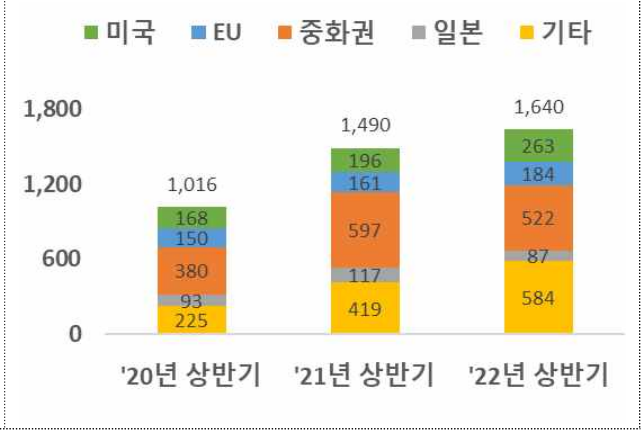
□ **(신고금액) 미국**(+39.5%, 비중 26.6%), **일본**(+62.1%, 비중 8.1%), **기타지역**(+161.5%, 비중 27.6%)은 **전년동기比 증가, EU**(△73.2%*, 비중 15.7%), **중화권**(△13.1%, 비중 22.1%)은 **감소**

* 전년도 대형투자에 따른 逆기저효과 : A社(독일, 21.0억불), B社(아일랜드, 18.0억불) 등

< **국가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국가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미국) 29.5억불**(전년동기比 +39.5%, 비중 26.6%)

- **(업종별) 제조업**(2.3억불, +38.2%)과 **서비스업**(26.6억불, +62.0%) **모두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H社(4.5억불, 부동산), I社(4억불, 도·소매(유통)), J社(0.4억불, 기계장비·의료정밀)

- **(유형별) 그린필드형**(27.0억불, +32.0%)과 **M&A형**(2.5억불, +276.7%) **모두 증가**

○ **(EU) 17.4억불**(전년동기比 △73.2%, 비중 15.7%)

- **(업종별) 제조업**(2.9억불, △67.4%)과 **서비스업**(12.7억불, △76.4%)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형**(8.5억불, △51.1%)과 **M&A형**(8.9억불, △81.3%) **모두 감소**

○ **(중화권) 24.5억불**(전년동기比 △13.1%, 비중 22.1%)

- **(업종별) 제조업**(6.9억불, +75.5%)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16.6억불, △26.5%)은 **감소**, 다만 **중국***의 경우 **제조업 투자 증가**(+84.2%)로 **전년동기比 0.4%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F社(1.3억불, 전기·전자), K社(0.6억불, 기계장비·의료정밀) 등

- **(유형별) M&A형**(5.2억불, 31.5%) 투자는 **증가**한 반면, **그린필드형**(19.3억불, △20.3%) 투자는 **감소**

○ **(일본) 8.9억불**(전년동기比 +62.1%, 비중 8.1%)

- **(업종별) 제조업**(3.8억불, +84.1%)과 **서비스업**(5.1억불, +52.7%) **모두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L社(2.5억불, 정보통신), M社(1.3억불, 정보통신), G社(1.2억불, 기계장비·의료정밀), N社(1.0억불, 화공) 등

- **(유형별) 그린필드형**(5.8억불, +13.8%)과 **M&A형**(3.1억불, +622.2%) **모두 증가**

□ **(신고건수) 미국**(+34.2%, 263건)·**EU**(+14.3%, 184건)은 **증가, 중화권**(△12.6%, 522건), **일본**(△25.6%, 87건)은 **감소, 건당 신고금액**이 **일본**에서 **크게 증가**(4.7→10.3백만불)

3. 대상별

□ (신고금액) **M&A형**(△49.2%, 비중 25.5%)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그린필드형**(+9.1%, 비중 74.5%) 투자가 **증가**

< 대상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대상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그린필드형) 82.6억불**(전년동기比 +9.1%, 비중 74.5%)로, **제조업**(+51.2%) **및 서비스업**(+1.6%) **모두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C社(5.7억불, 식품), F社(1.3억불, 전기·전자), H社(4.5억불, 부동산), M社(1.3억불, 정보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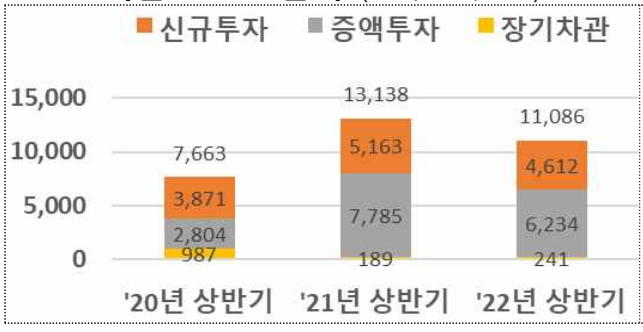
○ **(M&A형) 28.3억불**(전년동기比 △49.2%, 비중 25.5%)로, **서비스업**(△55.7%)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63.1%)은 **증가**

□ (신고건수) **그린필드형**(+10.7%, 1,483건), **M&A형**(+4.6%, 158건)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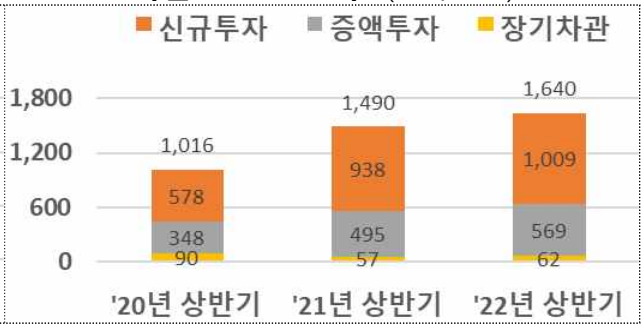
4. 자금별

□ (신고금액) **신규투자**(△10.7%, 비중 41.6%) **및 증액투자**(△19.9%, 비중 56.2%)는 **감소, 장기차관**(+27.6%, 비중 2.2%)은 **증가**

< 자금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자금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신규투자) 46.1억불**(전년동기比 △10.7%, 비중 41.6%)로 **제조업**(△1.3%)·**서비스업**(△5.4%)·**기타업종**(△58.5%) **모두 전년동기比 감소**

* 주요 투자사례 : H社(4.5억불, 부동산), D社(2.6억불, 기계장비·의료정밀), O社(1.2억불, 정보통신)

○ **(증액투자) 62.3억불**(전년동기比 △19.9%, 비중 56.2%)로 **서비스업**(△37.3%)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174.0%)·**기타**(+138.4%) **업종**에서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C社(5.7억불, 식품), P社(1.0억불, 정보통신), N社(1.0억불, 화공)

○ **(장기차관) 2.4억불**(전년동기比 +27.6%, 비중 2.2%)

□ **(신고건수) 신규투자**(+7.6%, 1,009건)·**증액투자**(+14.9%, 569건)·**장기차관**(+8.8%, 62건) **모두 증가, 건당 신고금액**은 **장기차관**만 **소폭 증가**(3.3→3.9백만불)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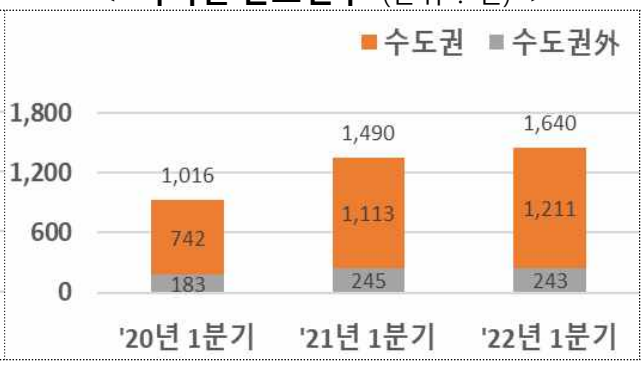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 外 : 이외 14개 시·도

□ **(신고금액) 수도권**(△24.9%, 비중 67.5%)은 **감소, 수도권 外**(+36.4%, 비중 17.9%)는 **증가**

< 지역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지역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수도권) 74.8억불**(전년동기比 △25.0%, 비중 67.5%)로 **제조업**(+38.3%)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31.5%)은 **감소**

* 증가 시·도 : 경기(+234.9%) / 감소 시·도 : 서울(△44.4%), 인천(△38.6%)

○ **(수도권 外) 19.8억불**(전년동기比 +36.4%, 비중 17.9%)로 **제조업**(+37.0%) **및 서비스업**(+136.4%) **모두 증가**

* 증가 시·도 : 세종(+3408.9%), 경북(+1,376.8%), 제주(+1,086.2%), 전북(+168.5%), 부산(+25.4%)
감소 시·도 : 강원(△96.2%), 대구(△94.7%), 경남(△90.5%), 울산(△86.0%), 충남(△77.6%), 전남(△57.4%), 대전(△56.3%), 충북(△36.8%), 광주(△17.1%)

□ **(신고건수) 수도권**(+8.7%, 1,211건) **증가, 수도권 外**(△0.8%, 243건) **감소, 건당 신고금액이 수도권 外에서 증가**(5.9→8.2백만불)

○ **(수도권) 제조업**(△+6.8%) 및 **서비스업**(+6.0%)은 **소폭 증가**

* 증가 시·도 : 인천(+42.2%), 서울(+5.7%) / 감소 시·도 : 경기(△5.5%)

○ **(수도권 外) 제조업**(△20.7%)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전년과 동일**

* 증가 시·도 : 경북(+150.0%), 광주(+137.5%), 충남(+31.8%), 부산(+16.7%), 전북(+8.3%)
감소 시·도 : 울산(△58.3%), 대구(△50.0%), 대전(△35.7%), 경남(△31.4%), 전남(△20.8%), 제주(△12.5%), 강원(△7.1%), 충북(△4.3%)

Ⅲ. '22년 상반기 외투 주요 사례(신고금액 1억불 초과 24건)

구분	내용	금액	업종	국가
그린필드 (38.7억불)	▸ **(○○社)**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10억불 미만 ~ 2억불 이상	제조 (식품)	과테말라
	▸ **(○○社)** 위탁급식업체 투자		서비스 (금융·보험)	케이만 군도
	▸ **(○○社)** 제주 리조트 개발		서비스 (부동산)	미국
	▸ **(○○社)** 신규 물류센터 건립		서비스 (도·소매)	미국
	▸ **(○○社)** 레지던스 개발		서비스 (부동산)	미국
	▸ **(미정)** 투자가 : △△		제조 (화공)	중국
	▸ **(○○社)** 친환경차 생산 확대		제조 (운송용 기계)	버진 아일랜드
	▸ **(○○社)** 부동산 투자	2억불 미만 ~ 1억불 이상	서비스 (부동산)	미국
	▸ **(○○社)** 배송대행 물류창고 설립		서비스 (운수·창고)	미국
	▸ **(미정)** 투자가 : △△		서비스 (도·소매)	중국
	▸ **(미정)** 투자가 : △△		제조 (전기·전자)	중국
	▸ **(○○社)** 핀테크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정보통신)	일본
	▸ **(○○社)** 물류창고 건립		서비스 (부동산)	싱가포르
	▸ **(○○社)** 온·오프라인 커머스시스템 확대		서비스 (도·소매)	케이만 군도
	▸ **(○○社)**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설립		제조 (전기·전자)	중국
	▸ **(○○社)** 반도체 장비 R&D센터		제조 (기계정밀)	일본
M&A (17.2억불)	▸ **(○○社)** 게임개발사 지분 취득	10억불 미만 ~ 2억불 이상	서비스 (정보통신)	네덜란드
	▸ **(○○社)** 사모펀드의 보유지분 확대		서비스 (운수·창고)	케이만 군도
	▸ **(○○社)** 피부미용기기 기업 지분 취득		제조 (기계장비)	케이만 군도
	▸ **(○○社)** 통신기업 주식예탁증서의 주식 전환		서비스 (정보통신)	일본
	▸ **(○○社)** 사이버보안 ETF 편입 위한 주식 매수	2억불 미만 ~ 1억불 이상	서비스 (정보통신)	미국
	▸ **(○○社)** 부동산 사모펀드		서비스 (부동산)	홍콩
	▸ **(○○社)** 콘텐츠회사 지분 확보		서비스 (정보통신)	미국
	▸ **(○○社)** 전자책 기업 지분 투자		서비스 (정보통신)	싱가포르